

부산신항 2-3단계 컨부두 4선석 민자로 건설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사업시행자로 지정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을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3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건설단계에서 재정지원과 운영 단계에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조항이 없어 정부 재정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일부 민자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운영수입보장 과다문제를 해소하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건설·운영하게 돼 민자사업 도입취지에 가장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5개 컨소시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이 사업에는 세계 2위의 프랑스건설사인 브이그건설, 선복량 기준 세계 3위의 선사인 프랑스 CMA-CGM, 이스라엘 선사인 ZIM, 세계적인 인프라 펀드인 호주 MKIF 등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프로젝트이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의 참여로 부산항 신항 환적 화물유치와 항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비 5,108억원을 들여 5만 톤급 컨테이너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총연장 1400m의 안벽 및 약 25만평의 항만부지를 건설하게 되며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

월에 착공해 2010년말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4년 동안 부산·경남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사업이 완공되는 2011년에는 8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2016년부터는 16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함으로써 부산항 신항의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방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문제 협의

빈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V.G. 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BIE)사무총장이 오는 16~19일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2012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측과 박람회 주제와 개최시기, 교통대책, 참가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17일에는 개최후보 도시인 여수시를 방문해 박람회장 부지조성 및 교통망 확충계획 등 유치 추진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후보지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둘러봤다.

스페인 세비아 출신인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1994년부터 BIE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 BIE 회원국 수의 증가 및 세계박람회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BIE의 위상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012 세계박람회는 여수에 이어 지난 6월 모로코(탕헤르)와 7월 폴란드(브로츠와프)가 각각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어 박람회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